

출판에도 물류혁명의 시대가 몰려온다

한국출판유통 창립 등 현대적 물류센터로 유통질서 재편

물류혁명의 해일이 출판계에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올해 최대 이슈인 '출판유통의 현대화'는 출판계에 또다른 지각변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미 몇몇 대형 출판유통기구의 출현으로 조짐을 보였던 국내 출판유통의 혁신바람은 최근 (주)한국출판유통의 본격 출발선언과 함께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출판유통의 현대화는 일련의 '시장개방'의 물결과도 무관하지 않다. 95년의 서점개방, 96년 인쇄시장 개방, 97년 출판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수순 속에서 국내출판이 '무한경쟁의 세계경제 체제'에 더이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지 않으리라는 위기감도 한몫한다.

종합유통센터로 2005년까지 완공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출판물종합유통센터로 자리하게 될 한국출판유통(공동대표 윤석금, 이기웅)의 창립은 올해 유통구조 변동의 큰 변수다. 지난 1월25일 창립총회의 기념식에서 이기웅 이사장은 "정보시스템에 기초한 물류처리의 전국적 네트워크와 첨단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유통업무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출판사와 서점, 책과 독자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최상의 종합적인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한국출판유통은 출판사(143개사)와 서점(107개사)을 합쳐 모두 250개사가 주주로 참여, 수권자본금 30억, 설립자본금 75억원으로 출발하게 됐다. 앞으로 98년까지 50억원의 재원별 자본조달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단지내 2만4천평 부지의 유통센터를 2005년까지 완전하게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통센터는 입체 자동창고와 물류터미널(5천평) 출판정보센터 및 사무동(2천평) 상품컨텐츠전시관(500평) 장기보관창고(1만평) 반포처리창고(500평) 주차장 및 지원시설(6천평) 등을 갖추게 된다. 수발주와 재고관리, 피킹 및 검품처리, 출하처리 등 전물류과정을 과학화 자동화하고, 온라인 정보교환을 통한 출판유통 정보통합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의 센추

출판계에 일고 있는 물류혁명의 바람이 최근 한국출판유통의 본격 출발선언과 함께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 현대화된 대형 유통기구들의 출현도 출판산업계의 구조재편을 재촉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기도 하다.

출판사 창고 구실도 함께 하고 있는 (주)뿌리와날개. 전산·자동화 처리로 업무를 현대화시킨 한양출판판매(주).



럴 북하우스, 독일의 KNO, 일본의 구리다 출판판매와 기술 제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경우, 현재 약 2조원으로 추정하는 출판산업 총매출 가운데 약 2천억원의 이익률이 약 3천억원으로 50%의 증가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출판유통은 2005년 완공전의 과도기 업무를 수행할 사업장을 과주단지 부근에 마련(5천평~1만평 규모)하고 97년 1월1일 영업개시를 위한 마무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산화의 마스터플랜부터 단계별로 개발할 예정인데, 출판사와 서점에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본격 영업의 전산화 기초부터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현대화된 대형 유통기구들

초대형유통기구인 한국출판유통의 설립과 함께 현대화된 대형유통기구들의 출현도 출판산업계의 구조재편을 재촉하고 있다. 91년 출판사 28사, 서점 25사가 총 6억원의 출자금으로 설립한 서울출판유통(대표 최선호)은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두미리에 1300평의 현대적인 유통센터를 갖추고 있



지난달 25일 가진 '한국출판유통'의 창립총회는 국내 유통구조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다.

다. 경부선과 연결된 위치에 있어 부산 대구 등 지방 배송에 유리하다는 강점을 내세운다.

다품종 소량, 다빈도 주문에 따라 디지털 피킹 시스템(DPS)을 도입, 운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컴퓨터 작업으로 선반(랙)마다 보관된 책의 위치와 집책 숫자를 빨간

불로 표시하는 로케이션 넘버로 관리한다. 주문받은 책을 찾는 데 들었던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 30% 이상의 물류관리비를 절감한다. U자형 컨베이어 시설과 대형 리프트 설치로 책의 분류와 포장, 운반을 합리화했으며, 출판사와 서점간의 수발주 업무를 신속히 하기 위한 EDI시스템을 운용한

다. 앞으로 제2창고(1천평)와 제3창고(1천평), 사원아파트와 초현대식 6단 기계화 창고(1천평)를 단계별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선호 사장은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경우 유통기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조직이 없는 소규모 출판사들의 책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선 '라인의 통합'이 절대 필요하다. 시설 합리화 등 유통발전을 위해 특화된 몇개의 유통구조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출판유통의 노후우가 새로운 유통기구의 전범이 되길 바란다.

94년 '책류시스템'을 선언하며 출범한 (주)뿌리와날개(대표 강경중)는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상지석리에 위치한다. 대지 6200평에 건평 2500평 규모로 1천만권의 책이 보관가능한 최대규모 창고를 자랑한다. 출판물의 편집, 제판, 인쇄, 제본에서부터 창고보관, 배송, 반품, 재생처리와 VAN망을 이용한 정보지원에 이르기까지 출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윈스톱 서비스'한다는 책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책류 시스템'은 크게 책의 제작부문을 맡은 종합인쇄(주)뿌리와날개와 책의 보관 배송부문을 맡은 (주)뿌리와날개유통으로 나뉜다.

공동창고에는 70여개 출판사들의 위탁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4월부터 5천평 규모의 위탁창고를 따로 운영, 출판사 특성에 맞는 도서관리를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서 입고출고·재고관리가 전산화, EDI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전국 36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

95년에 설립한 (주)한양출판유통(대표 홍승대)은 지난해 말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능안리에 보다 자동화된 물류센터의 모양새를 갖춰 출발한 유통기구다.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지원받아 760평 부지에 준공된 한양출판판매의 물류센터는 600평 가량의 창고에 I자형 2라인의 도서집하·자동적재 장치를 갖춘 컨베이어 시스템, 분당 100부의 스캐닝과 출고전표의 자동발행이 가능한 자동 스캐닝 시스템, 시간당 360부 부착이 가능한 자동라벨 부착기와 시간당 800부가 인쇄되는 바코드 프린터 등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양출판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 주문 판

매 기록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를 소매상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일정기간 동안 무슨 책이 얼마나 많이 판매됐는지의 정보자료를 뽑아 각 서점 혹은 출판사마다 공급함으로써 서점의 차별화 전략과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울러 기존 서점들의 판매 분석과 도서서가 진열배치 등 종합 서점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

홍승대 사장은 "96, 97년은 유통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필요상품을 소량 다품종으로 기획 출판하려는 경향에 따라 유통업무도 섬세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자료분석에 의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집중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류혁신의 기초는 EDI시스템에 의한 네트워크의 구축이므로 필요하다면 우리의 노후우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있다"고 밝힌다.

출판도약을 위한 중요한 열쇠

이밖에 지난해 도매상 청운을 흡수합병한 보문당(대표 이상규)도 도서입출고 등 도매업무의 전산 자동화로 효율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도매기구다. 일반 단행본을 취급하는 유통기구로는 비교적 크고 서울 시내에 위치한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부산의 한성서적과 한림서원도 지역 유통기구의 새로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매기구들의 유통 현대화 뿐 아니라 출판사들 또한 공동창고 마련 등에 적극적이어서 당분간 출판계의 물류혁신 바람은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물류혁명'의 물결이 국내 출판계의 전근대적인 구조를 새롭게 바꾸리라는 기대감은 높다. 얽히고 설켜 유통구조의 난맥상은 출판계의 오랜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던 터라, 유통혁신의 움직임은 출판계 전체 틀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는 인식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관건의 하나로 물류비용에 대한 출판사와 유통회사들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면, 이제 물류비용을 줄이는 일의 실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김지원 기자



현대 과학 세계로의 지적 대탐험 사이언스 마스터즈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에서 과학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가십시오.

인류의 무한복제는 가능한가?
지구의 최후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류의 시작, 그 흔적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미지의 과학세계로 떠나십시오.
쉽게 풀어 쓴 과학이야기 — 『사이언스 마스터즈』
세계적인 석학 22명이 최신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얘기해 드립니다.

**전세계 26개국
동시 출간!!**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95 신간 안내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마지막 3분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유전자로 본
진화의 메커니즘
에덴 밖의 강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우주의 기원

코미워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의 기원

인류는 과연 20만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물질의 핵심에 대한
본격 해부
원소의 왕국

물질의 핵심으로의 신나는
여행!
저명한 과학자, 훌륭한 여행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원소의 세계를 기대해 보자.

피터 앳킨스 지음



수학적 시각으로 본
자연의 패턴
수학의 본성

왜 많은 꽃들의 꽃잎이 5개
혹은 8개이고, 극수수에만
6개 혹은 7개인가?
왜 눈송이는 육면체인가?
자연의 수학적 본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언 스투어트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22권

- ▶1995년 7월 발간
① 『마지막 3분』: 폴 데이비스
② 『에덴 밖의 강』: 리처드 도킨스
③ 『우주의 기원』: 존 배로우
④ 『인류의 기원』: 리처드 리키

- ▶1995년 근간 예정
⑤ 『원소의 왕국』: 피터 앳킨스
⑥ 『수학의 본성』: 이언 스투어트
▶1996년 이후 발간 예정
⑦ 『지능의 출현』: 윌리엄 갈빈
⑧ 『세포의 진화』: 린 머글리스
⑨ 『대기와 환경』: 스티븐 슈나이더
⑩ 『뇌 속의 세계』: 폴린 블랙모어
⑪ 『컴퓨터의 미래』: 다니엘 힐리스
⑫ 『시간의 시작』: 조지 스무트

- ⑬ 『암분자의 기원』: 로버트 와인버그
⑭ 『일지화학』: 메레이 겔만
⑮ 『인지과학』: 다니엘 데넛
⑯ 『성의 진화』: 자레드 다이아몬드
⑰ 『사회 변화와 적응』: 메리 베이트슨
⑱ 『생활사의 유형과 방향』: 스티븐 골드
⑲ 『컴퓨터와 인공지능』: 마빈 민스키
⑳ 『적응』: 조지 윌리엄스
㉑ 『언어와 정신』: 스티븐 핑커
㉒ 주제 선별중

동아출판사

편집 (02) 866-8800 (교환 317)
영업 (02) 861-4818 / (02) 853-5608